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7월 13일(목)

## 윤석열 대통령,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오찬

- 전략적 분야 협력 가속화와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노력 약속 -
- 양국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미래세대 교류 지원 확대에 공감 -

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7.13(목) 오후 「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(Mateusz Morawiecki)」 총리와 오찬을 갖고, 한-폴 양국 간 교역·투자, 원전, 방산, 인프라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와 문화, 인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.

윤 대통령은 경제전문가인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한-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기여해 준 점에 사의를 표하고, 폴란드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 아울러, 양국 간 협력 확대 유망분야로서 원전, 에너지, 인프라 분야,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제시하고 동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.

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적극 공감하면서,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.

양측은 2016년 한-폴 간 직항노선 개설 이후 상호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, 양국 간 항공노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새만금에서 개최될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에 폴란드 대표단의 참가를 환영하고,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 친근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.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, 특히, 젊은 세대간 교류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데에 공감하고,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를 지원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.

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, 윤 대통령은 모라비에츠키 총리에게 지난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기구 총회 결과를 설명하고, 폴란드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.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의 열정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, 부산 입후보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. <끝>

**보도자료**

**담당**

**외교비서관실**